

# 순정이

사순 제2주일

제1독서 : 장세 15, 5-12, 17-18

제2독서 : 필립 3, 17-4, 1

복음 : 루가 9, 28b-36

“이는 내 아들,  
내가 택한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어라!”  
(루가 9, 35)

## 강론

## 소리

### 고통의 언덕 넘어 영광의 빛

### 조령모개의 달콤함

권완성 신부/영등동 천주교회

우리는 완전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갈구하지만, 항상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죄에 떨어지는 순간들을 발견한다. 우리는 하느님과 이웃과의 일치를 바라면서도 자기를 버리지 못하는 데서 오는 아픔들도 체험하고, 또한 자기를 버림으로써 오는 하느님과 이웃과 일치하는 체험도 한다. 이런 반복된 체험들 속에서 우리가 가야할 길은 하느님과 이웃 앞에서 자기를 버리고 가야한다는 사실뿐이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매일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루가 9, 23) 자기를 버릴 때 하느님께서 채워 주신다는 사실을 체험한 자만이 진정으로 ‘자기를 버리지 못함’을 참회할 수 있고, 또한 ‘자기를 버리는 길’을 기쁘게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체험이 약하다. 이 체험이 강화되는 날, 우리도 그 길을 갈 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영광스러운 변모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을 따랐던 제자였지만, 또한 자기를 버리지 못하고 ‘누가 제일 높으냐’로 다투었던 제자였다. 스승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제자들은 방황하고 변민할 것이 뻔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스승의 십자가 뒤에는 영광의 빛이 있음을 모르기 때문이다. 예수의 영광스러운 변모는 고통의 언덕 넘어 영광의 빛이 있음을 제자들에게 보여 주기 위함이고, 그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이 진리를 믿는다. 우리는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동전의 뒷면과 같이 영광의 빛이 있음을 믿는다. 그러나 신앙인이면서도 주님의 영광보다 자신을 믿는 자는 결코 자기를 버릴 수가 없다. 그는 현실론에 입각하여 ‘왜 나를 버려야하고, 왜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가?’ 하는 어리석은 반문만 되풀이 할 뿐이다. 고통의 언덕 넘어 영광의 빛을 믿는 자, 그가 진정한 신앙인이다. 그 자만이 현실을 밝혀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조령모개(朝令暮改)란 아침에 명령을 내렸다가 저녁에 다시 고친다는 뜻으로 법령이 자주 변함을 이르는 말이다. 그런데 현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많은 정책들이 이 말처럼 되고 있어 걱정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문명정부’가 들어서자 군사정권의 폐단에 진절머리가 났던 다수의 국민들은 ‘문명정부’에 많은 기대를 했다. 아니나 다를까 초기 ‘문명정부’는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그간 군사정권에서는 기대조차 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해냈다. 국민의 지지는 높아졌고,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해 ‘고통을 분담’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인지 국민의 기대는 허물어지기 시작했고, 현정부에 보내는 지지 역시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책의 무원칙이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정부 출범 후 2년 동안 통일원 장관만도 다섯 번이나 바뀌었다. 통일정책을 추진해 가는 중심 인물인 통일원 장관이 자주 바뀌었다는 것은 통일정책의 일관성 결여와 그만큼 통일의지가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요즘은 지난 3월 15일 여야의 합의로 만든 지방자치 선거법을 손질해야 한다고 야단이다. 선거를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에서 나온 이 발상은 그 의도의 불순성으로 말미암아 야당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의혹의 눈길을 받고 있다. 더우기 지방자치제 선거를 연기하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는 여권 고위인사의 말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국민과의 약속을 팽개치고 얼마든지 법령을 바꿀 수도 있음을 뜻한다고 할 수도 있다. 위정자들이여, 조령모개의 달콤함에서 벗어나시오. **땀**

### 순정이 산책



성서교실 50

“네가 정말 우리에게 왕 노릇할 셈이냐?”(창세 37, 1~11)

요셉 이야기의 세부적인 대목들을 해설하기 전에 이 이야기의 일반적인 특징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어떤 학자들은 요셉 이야기를 야곱설화에 속하는 이야기들 중의 하나로 보는 이도 있지만 그 성격이 야곱 이야기와는 판이하게 다르고, 이야기의 초점이 어디까지나 요셉에게 집중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야곱설화와 분리시켜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우선 이 이야기는 여러 개의 독립된 이야기들이 모여 이루어진 다른 성조 설화들과는 달리 처음부터 끝까지 매끄럽게 엮어진 작품들이다. 이야기의 구성은 주로 야취스트 문헌과 엘로히스트 문헌에 바탕을 두고 있고, 사제계 문헌도 여기저기 끼여 있는데 최종 편집자가 이 세 문헌들을 부드럽게 조화시키고 있다.

둘째 요셉설화는 인물들에 대한 심리학적인 통찰력과 성격 묘사가 뛰어나다. 이 점에 있어서 요셉설화의 저자는 에집트인들의 지혜문학에 상당한 영향을 받은 것 같다.

셋째 다른 성조설화와는 달리 요셉설화에서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발현이나 개입이 등장하지 않는다. 세 쌍의 꿈이 나오는데도 그 안에 하나님이나 천사들이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는 전혀 없고, 이 꿈들이 순전히 인간적인 내용들로만 이루어져 있을 따름이다. 요셉설화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의 행위들을 통해서 활동하신다.

마지막으로 언급해야 할 것은 이 이야기의 정치적인 배경이다. 야곱설화가 씌어진 배경은 솔로몬 왕 때였는데 왕정체도가 이제 서서히 이스라엘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던 시절이었다. 왕정체도는 그것이 이스라엘에 처음 도입되던 시기부터 이미 이 체도가 과연 하나님의 왕권을 존중시키는 야취신앙과 합치될 수 있을까 하는 비판에 부딪혔다. 더구나 솔로몬 왕의 과중한 세금과 부역, 적자 출신의 형 압살롬을 제치고 권좌에 오른 솔로몬의 왕위계승을 정당하게 보아 줄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도 심각하게 제기되었다. 솔로몬 궁전의 서기관들은 이런 문제들에 대한 답변을 요셉설화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한편으로 요셉이 에집트의 막강한 제상이 되었으면서도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가족들을 기아에서 보호해주었음을 강조함으로써 왕에게 개인적 가정생활을 보



호혜 주어야 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아벨과 카인, 야곱과 에사오의 설화에 이어 요셉과 열두 형제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택은 반드시 인간적인 서열에 바탕을 두고 있지 않음을 보여 줌으로써 솔로몬의 왕위계승을 정당화한다. 그러나 이런 정치적인 배경이 이야기의 내용을 왜곡시키는 것은 아니다. 요셉설화 속에는 영원불멸의 진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인류에게 호소하는 보편적인 메시지가 풍부하게 들어 있다.

요셉이 17살이 되어 형들과 함께 양들을 치게 되었는데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야곱의 소실·빌하와 질바의 아들들, 곧 단과 납달리, 가드와 아셀의 잘못을 요셉이 아버지에게 고자질한 것이 첫째 이유이고, 둘째 이유는 아버지 이스라엘이 요셉을 편애하여 사치스러운 옷을 지어 입힌 것에 있다. 세 번째 이유는 그가 꾸는 세 쌍의 꿈에 있다.

요셉설화에 나오는 6개의 꿈들은 모두 두 개씩 짝지어 있는데 짝지워진 한 쌍의 꿈들이 내용상 서로 연결되어 있다. 요셉의 첫 번째 꿈은 들에서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것이다. 이 꿈 이야기를 듣고 형들은 발끈해서 “네가 정말 우리에게 왕 노릇할 셈이냐?”고 욱박지른다. 왕정을 반대하던 사람들의 비판이 이 말 속에 반영되어 있는 것 같다. 두 번째 꿈은 형들의 권위뿐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의 권위에까지 도전하는 내용이다. 해와 달과 열한 개의 별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이 그것이다.

**현대 미용학원**  
 미용과 · 피부과  
 메이크업 · 분장과  
 김 금 순(테라사)  
 전주시 진북1동 373-3  
 ☎86-2211, 254-3003

**성 윤 예 식 장**  
 · 한 홀에 하루 2쌍만을 탄생시키는  
 여유로운 예식 · 예식과 피로연이 동  
 일 건물에서 이루어지는 곳  
 · 편리한 대형 주차시설  
 임 정 옥(사비나)  
 어우터널 앞  
 ☎ 224-8048

**금강 자동차 유리**  
 중장비 유리 · 카 악세사리  
 시트카바  
 이 경 식(바오로)  
 양 금 남(실비아)  
 덕진구 팔복동 정비공단(대우정비 옆)  
 ☎ 213-1773  
 호출기) 012-687-0992

**LG(금성)에어콘 총판**  
 에어컨, 향온향습기, 공기정화기, 온풍  
 기, 대형냉장고, 중앙집중식 냉난방  
 원 종 삼(발라바)  
 원 승 연(도밍고)  
 삼화공조 ☎(0652)251-0190-2  
 FAX.(0652)251-0192



교리상식 17

사순절의 의의

사순절은 부활축제를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초대교회는 단식과 참회 및 기도으로써 부활절을 준비하였고, 이러한 정신이 사순절의 전례 안에 많이 배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관습에 의하면, 중죄를 지은이가 자신의 죄를 주교와 공동체 앞에 공적(公的)으로 고백하면 주교는 참회 기간을 정해주었습니다. 참회자는 재의 수요일에 참회복을 입고 공적 참회에 들어가는데, 그에게는 영성체가 금지되었습니다. 성목요일 오전에 이러한 참회자들과 교회 공동체 간의 화해예식이 이루어지며, 이로써 참회자들은 정식으로 부활축제에 참여하는 기쁨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같은 공적 참회와 공적 화해가 이 사순시기에 이루어짐으로써 고행과 보속의 시기라는 점이 더 강조되어 갖가지 형태의 고행방식이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식이 없어진 지금, 사순절의 본래 뜻을 다시 찾아야 할 것입니다.

교구 소식

알림

부제서품 대상자 : 김혁태(베드로, 서울 원당 본당), 김훈(안토니오, 금암 본당)

'91년 3월 위 2명의 교구신학생은 오스트리아 인수부룩대학으로 유학을 떠나 사제양성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이제 이들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95년 4월 1일 부제서품을 받을 예정입니다.

만일 위 서품자에게 서품하기에 장애가 되는 무슨 결함이 있는 줄을 아시면 누구든지 주의 영광과 성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반드시 본당신부나 주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교회법 제1043조, 제1051조)

아울러 모든 신자들께서는 이 서품자들을 위하여 하느님께 열심히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995년 3월 12일  
천주교 전주교구장 이병호 주교

1. 천호 피정 안내 : 3월18일~19일 주제-그리스도인의 삶(관계성), 강사-김종필 신부, 문의 73-6600
  2. 재무평의회 : 3월14일(화) 오전10시 교구청
  3. 사제총회 : 3월16일(목) 오전10시 천호 피정의 집
  4. 가톨릭 사진가회 촬영 모임 : 3월19일(일) 오전7시 가톨릭센터
  5. 전례교육 : 3월18일~19일 오후3시 나바위 피정의 집
  6. 전주 '파티마의 모후' 레지아 월례회 : 3월19일(일) 오후2시30분 가톨릭센터 3층
  7. 전주교구 레지오 마리에 창설 40주년 기념행사를 위한 헌혈 : 3월19일(일) 용머리 성당
  8. 제6회 정가총회 및 본당 여성단체 임원피정 : 3월20일(월) 오전9시30분 가톨릭센터 3층 회의실, 강사-조철현 신부
- ※. 축! 영명 : 19일(성요셉) 안복진, 배영근, 유장훈, 정승현, 나궁열, 김순태, 조정오, 강덕행, 서광석, 최장범, 서석희 신부님

요심이 (1124) 김병오



사무장 구함

1. 제출서류 : 이력서, 세례증명서, 본당신부님 추천서
2. 연락처 : (0654)446-9197
3. 제출기간 : 3월 31일까지  
천주교 필마교회

치질 전문 치료  
서울의원

레이저로 치질 무통 수술,  
수술 후 무통으로 활동 가능  
전주시 덕진동 덕진광장 앞  
원장 이 상 재(베네딕도)  
☎ 75-0550

쌍방울 효자 전문점

이 오 환(요한)  
양 진 희(아나다시아)

효자 테니스 알  
☎ 222-1723

월드 카메라

각종 카메라 판매·수리  
필름 현상·인화  
유 석 영(미카엘)  
전풍백화점 5층  
☎ 232-0114

영창피아노 전주중앙대리점

· 36개월 할부 판매  
· 중고 피아노 교환 · A/S 전문점  
전 상 진(베드로)  
유 명 숙(요안나)  
다가동 파출소 옆  
☎ 84-6085, 223-5823

40년 전통  
성심당 한약방

이 상 범(필로리아노)  
중앙시장 육교 밑  
☎ 252-4544, 85-0173

동서로 삼익피아노

· 피아노, 교회용 전자오ργαν, 관현악기  
· 각종 수입악기 판매  
· 악기구입, 음악교육 및 연주 지도 상담  
동서 관동로 다가교 입구  
김 태 우(알폰소)  
☎ 88-7717~8

#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사제관 82-9663 사무실 82-9661 주임신부 박진량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김동주

**◎ 사순 제2주일**

1. 미사시간 변경: 14일(화요일)부터 저녁미사가 7시에서 7시30분으로 늦춰집니다.
  2. 가제총회: 16일 전 10시 천호 피정의 집
  3. 가정방문 안내: 17일 중노7반
  4. 전례봉사자 교육: 19일 장엄미사 후  
\* 전례분과위원 각 구역 전례 봉사자들께서는 참석바람
  5. 비품구입 특별헌금: 최병선(시몬), 최석균(요한)-각 100만원, 이영관(아오스딩), 유혜란(가타리나), 한기성(레오), 노판석(알로이시오), 이동근(빈첸시오)-각 30만원, 박인식(아오스딩)-20만원, 채용(유리안나), 이광호(안토니오)-각 10만원, 한현실(테레사)-5만원, 노함옥(막달레나), 변태공(스테파노)-각 3만원, 문예순(세레나)-2만원.  
※ 소계-사백오만원 ※ 누계-오백삼십팔만원
  6. 모임: ① 여성연합회(15일 어머니미사 후)  
② 형제회(18일 후 2시)  
③ 대건회(19일 장엄미사 후)
  7. 13일부터 성사를 보실 분은 사무실에서 판공성사표를 가져다 보아 주십시오.
  8. 축! 혼인: 19일 12시  
신랑-백창규 군, 신부-김미숙(골롬바)양
  9. 금주 청소: 인후 11, 동진 1반.  
차주 청소: 동진 2, 남노 1반
- 지난주 봉헌금: 1,016,830원 □ 교무금: 1,884,500원

**\* 복자** 주임신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정승현  
보좌신부 86-3032 수녀원 86-3454 보좌신부 승년홍  
사목회장 황길평

1. 십자가의 길: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2. 사순절 신앙강좌: 매주 금요일 오후 7시30분  
강사-범석규 마리아 신부
  3. 매주 금요일은 금육제 날: 14세 이상 꼭 지켜 주십시오.
  4. 집 요셉 주임신부님 영명축일: 19일 공식미사 후 축하식  
신부님의 영육간 건강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5. 전례위원 교육: 18일-19일, 장소-나바위
  6. 금주 회합: 요셉회-12일(오늘) 공식미사 후  
구리아-12일(오늘) 오후 2시  
청년회-12일(오늘) 저녁미사 후  
성모회-16일(목) 오전 10시
- 축! 결혼:** 19일 오후 1시  
신랑-이태희 군, 신부-김혜경 아네스 양
- 성당 청소:** 바다의 별Pr., 자비의 모후Pr.  
**금주 전례:** 해설-조옥래, 독서-송종일 부부,  
봉헌-경승관 가족
- 차주 전례:** 해설-황만규, 독서-이갑규 부부,  
봉헌-장현상 가족
- 지난주 봉헌금: 572,850원 □ 교무금: 1,995,000원

**\* 상관** 사제관 85-6654 사무실 85-6652 주임신부 한봉실  
수녀원 85-6653 사목회장 양주태

- ◎ 사순절은 회개와 보속, 그리고 은총의 시기입니다.
- ◎ 매 미사 30분 전 십자가의 길 기도 있습니다.
1. 모임: ①안나회-공식미사 후 ②장년회-18일(토) 저녁미사 후  
③새 영세자 모임-다음주일 2. 전례 교육: 18일(토)~19일(일)까지 나바위 3. 사순절 저금통: 얼마만큼의 관심이?
  4. 축! 혼인: 12일(오늘) 12시30분  
신랑-장석원(스테파노) 신부-박경아(테레사)
  5. 금주 청소: 천사들의 모후Pr. 6. 차주 청소: 평화의 모후Pr.
  7. 금주 전례: 해설-최원규, 독서-①최경림 ②이석남  
봉헌-성대적씨 부부
- 차주 전례:** 해설-이춘봉, 독서-①강덕용 ②이순자  
봉헌-박귀철씨 부부
- 고백성사**  
고백성사란 성세성사로서 받은 하느님의 생명을 죄로 인하여 상실했을 때 인간의 회심과 하느님의 용서로서 생명의 은총을 회복시켜 주는 성사를 말한다. 죄: 1) 나쁜 행위: 하느님의 뜻은 계명이나 법 혹은 윤리, 그리고 뉘사람의 명령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것은 그때 그때 양심을 통해서 파악된다. 다만 하느님은 인간의 행동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속마음을 보고 판단하신다.  
2) 의식하고: 나쁜 행위를 하고 있음을 자신이 의식하고 있어야 죄가 된다. 나쁜 행위를 하고 있는 줄을 모른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 다만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모르고 범했다면 책임이 없다.  
3) 동의해야 한다: 하느님의 뜻에 맞지 않는 나쁜 행위인 줄 알지만 자기가 자유로이 원한 것이 아니면 죄가 되지 않는다(불가항력적인 경우).

성서교실: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오후 7시30분 전동성당 교육관, 사도들의 서간·요한묵시록 강의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이종원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민병부

1. 모임 안내: 프란치스코상화-오늘 오후 2시, 장소-회합실  
성심회-14일(화요일) 오전 10시30분,  
장소-회합실
  2. 반미사 안내: 15일(수) 오후 2시30분, 9반, 신천지APT  
장소-최옥자(헬레나) 전일연합 4동201호  
17일(금) 오후 2시30분, 10반, 11A, B반  
장소-박미란(세실리아)
  3. 사순절 십자가의 길: 매주 금요일 저녁미사 후  
장소-치명자산
  4. 초·중·고 교리 등록제 실시: 95학년도 1학기 등록비 3,000원  
(교재 및 교리준비비)
  5. 성전의자 헌금 신입하신 분: 민병부(스테파노)-2백만원, 김순자(루시아)-10만원, 익명-20만원, 김유복의 4명-12만원.  
지난주 의자성금-2,620,000원, 누계-5,080,000원. 헌금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자성금을 다같이 신입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1,086,850원 □ 교무금: 739,000원

**\* 전동** 주임신부 81-0098 사무실 84-3222 주임신부 김봉희  
보좌신부 82-7245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김영태  
F A X 82-6232 유치원 84-8347 사목회장 이명행

- ◎ 사순 제2주일  
치명자산 산성미사-오전 5시30분  
십자가의 길 기도-매일 저녁 6시30분(성당)
1. 금주: ①자모회(전 10시)  
②일치의 모후 구리아(후 2시)  
③부활 판공성사(금주부터 저녁미사 후에 고백실에서)
  2. 사라회: 14일(화) 오전 11시
  3. 나자렛회: 14일 오전 11시
  4. 사목회: 14일 오후 8시
  5. 사베리오회: 15일(수) 오후 7시30분
  6. 구역반장 회의: 16일(목) 오전 11시
  7. 전례교육: 18일-19일, 나바위 교육관
  8. 차주: ①요셉회 정기총회(공식미사 후)  
②바나의 성모 구리아(후 2시)  
③청년연합회(후 8시)
  9. 견진성사(4월23일) 대상자(중학생 이상)접수: 3월18일까지  
교리-3월19일부터 4주간 공식미사 후에 교리  
4월17일-22일 성령세미나  
※ 축하드립니다: 시종직-김동춘(베드로)  
독서직-공현성(요셉)
- 지난주 봉헌금: 2,198,230원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수녀원 87-0229 주임신부 이재후  
사무실 83-8245 F A X 82-6686 사목회장 강삼근

- ◎ 사순절 기적활동 1일 계획표대로 실천하고 있습니까?  
◎ 성전신축을 위한 기도: 매주마다 카드함에 봉헌바랍니다.
1. 사목회 상임위원회: 14일 후 8시, 친교와 나눔에 대하여
  2. 교구전례 교육: 18일-19일 나바위, 개인별 혹은 본당별로 18일 오후 3시까지 도착바랍니다.
  3. 성소 후원의 날: 19일 공식미사 후, 후원회원 가입을 환영
  4. 반미사: 오전 10시, 오후 3시, 저녁 8시, 14일 전3-4.5 후2-4 15일 저녁2-3 17일 전6-1 후2-3 전3-6
  5. 예비자 모인: 4월2일까지 수녀님께 접수바람(주일 공식미사 후, 목요일 저녁미사 후, 목요일 오전 10시) 1인 1도 인도
  6. 회의: ①성체회-오늘 공식미사 후 ②빈첸시오-15일 어머니미사 후 ③임마누엘, 한빛회-19일 공식미사 후 ④청년회-19일 저녁미사 후 7. 꾸르실로 신청의 날: 26일까지.
  7. 축! 결혼: 신랑-조성진(야고브), 신부-박옥희(루시아) 오늘 12시 중앙성당 9. 전입을 환영합니다: 코오롱APT 유숙자(첼마) 9/1501 ☎221-6832 김철기(스테파노) 12/506 ☎225-5785 박귀섭(세례자요한) 7/601 ☎225-6468 이경성(아오스딩) 8/101 ☎225-2130 김필순(루갈다) 4/406 ☎225-6067 김수용(스테파노) 8/1305 ☎222-4623 김봉근(요한) 8/504 ☎225-6211 김기자(로사) 7/1203 ☎223-9844 이효남(에스텔) 7/902 ☎222-2037 김진남(캐롤린) 12/2004 ☎225-7042 정서경(요셉피나) 10/1303 ☎225-4071 이은영(소화테레사) 7-5 ☎221-3261 김화숙(실비아) 평화주당 201/804
- 지난주 봉헌금: 1,449,720원 □ 교무금: 1,470,000원

성서교실: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오후 7시30분 전동성당 교육관, 사도들의 서간·요한묵시록 강의